

성명	윤준기	수험기간	2021.10.~2024.07.
학교	서강대학교	전공	화공생명공학과
키워드	1차수석 특허고득점		

들어가며

먼저 합격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수많은 합격수기를 읽기만 하다 이렇게 작성할 날이 오다니 현실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제 합격수기가 도움이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합니다!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59회1차(불합)

산재법 - 65점, 민법 - 77.5점, 자연과학 - 50점, 평균 64.16점

60회1차(합)

산재법 - 95점, 민법 - 97.5점, 자연과학 - 82.5점, 평균 91.6점

60회2차(불합)

특허법 - 53.33점, 상표법 - 48.33점, 민사소송법 - 57.33점, 디자인보호법 - 56점, 평균 53점

61회2차(합)

특허법 - 59.33점, 상표법 - 57.66점, 민사소송법 - 63.33점, 디자인보호법 - 67.66점, 평균 60.11점

공부방법에는 정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간략하게 기재했으나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공부

【민법】

☑ 59회(21년10월말(전역) ~ 22년 2월) - 77.5점

기본강의 듣고 기본서 1회독하고 기출문제 몇 개 풀고 시험본 결과 77.5점이 나왔습니다. 이 때 기간 동안의 공부방법은 합격수기를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서술한 이유는 이 때도 공부를 하긴 한 점과, 민법이라는 과목이 매우 재밌는 과목이라는 점을 제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며, 법이라는 것을 처음 공부한 결과 나와 잘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본서는 김준호 교수저였는데 이거보다간 회독을 절대 빨리 할 수 없다고도 느꼈습니다.

☑ 60회(22년 3월부터 ~ 23년 2월) - 97.5점

(1) 커리큘럼

민법 김동진 기본강의(3,4월) - 시험 직전 최판특강, 쟁돌특강(기본강의 수강시 무료) - 시험

(2) 기본강의 수강

22년 1학기는 학교가 코로나로 인한 사이버 강의여서 학기 병행을 하였습니다. 기본강의를 들 때는 절대 예습하지 않았고 강의를 들은 후에 복습만 철저히 하였습니다. 필기노트가 따로 있는데 기본서만 보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 필기노트의 도해를 포스트 위에 옮겨 그려서 기본서에 붙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붙여놔야 회독 시 필기노트를 참조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본강의를 다 들어갈 시점이 되니,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봐야 했습니다.

(3) 기본서 회독

본격적으로 회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이후였습니다. 민법공방 기본서가 760페이지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기본서 읽는 것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회독의 주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어차피 회독 수가 쌓이면 이해가 될 것이라는 김동진 강사님의 조언이 있었고 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스케줄에 민법을 공부하는 시간은 오로지 회독만을 하였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는 날에는 회독을 4시간 하였습니다. 시험 전까지 회독한 결과 11회독하였습니다.

회독한 주기는 처음엔 1달이상이 걸렸으나 시험 직전 회독은 4일안에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독 때는 회독전에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 약한 부분은C, 중간은 B로 둔 후 시험 3일전에 A, 2일전에 B, 전날에 C를 보았습니다. 이러면 가장 약한 부분은 시험 직전에 보기 때문에 덜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김동진 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이는 반드시 하는 걸 추천합니다.

(4) 기본강의 재수강

중간고사 이후로 회독을 시작하였으나, 1회독도 채 못하고, 학교 기말고사 준비 및 실험 세미나 준비를 하여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공부를 중단해야 했고, 1학기가 끝나니 민법이 상당부분 휘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독을 하는데 속도도 전혀 나지 않고 심지어 이해도 대부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답답하여 기본강의 수강기간이 남아서 기본강의 일부를 다시 보니 너무 이해가 잘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2배속으로 다봤습니다. 1차시험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 가능한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보는데는 10여일 정도 걸린것으로 기억합니다.

(5) 문제풀이(OX)

민법공방연습이 10월정도에 출간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풀 강의가 열리지만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풀이를 시작한 시점은 기본서를 6회독 정도 한 시점으로 기억합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에는 먼저 문제풀이를 2시간정도 하고 기본서 회독을 2시간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동진 강사님은 추천하진 않는 방법이지만, 민총에서 채각까지 전범위를 최대한 빠르게 돌릴 수 있도록 각각의 문제에 번호의 일의 자리가 같은 문제(예를 들어 1번 11번 21번 31번...)들을 풀어나갔습니다. 이러면 채각까지 생각보다 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문제집에다가 답을 표시하면서 풀지 않고, 아이패드에서 따로 표시하여 풀어서 절대 다음에 돌아올 때 이미 폰 흔적을 참고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집에는 정자로 몇번 틀렸는지만 표시하였습니다.

문제풀이를 전체를 돌린 것은 총4번 풀었고, 시험에 임박했던 1월부터는 틀렸던 문제, 2번이상틀린 문제, 3번이상 틀린 문제를 풀었습니다.

(6) 5지선다형 모의고사

김동진 강사님 카페에 시험 가까이오면 모의고사를 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올려 주셨던걸로 기억합니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이한 것은 이때뿐입니다. 시험이 다가왔고 이미 민공연에서 다 풀어본 선지들이 너무 많아서 기출문제를 풀면 다 푸는데 30여분 정도 걸렸고, 틀린 문제가 많진 않았습니다.

이때 민법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커졌고, 실제 시험에서는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푸는 전략을 쓰기로 했습니다.

(7) 무료 특강

시험 임박하면 무료 특강이 열립니다. 최판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최판을 모르면 틀릴 수도 있고 출제가 아예 안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되어 수강하였습니다. 짱돌은 선택인 거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여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짱돌 특강도 안열린 "기간"파트는 타 전문직 강의 영상을 카페에 올려 주셔서 그걸 들었습니다. 60회 때 정말 기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운이 좋았기도 하였습니다.

(8) 시험 전략과 실제 실행 여부

40문제를 푸는데 30분 내외가 걸린다는 것을 확인 후, 시험장에서 40문제를 총 2번 푸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진짜 너무 확실해서 다시 풀어도 동일한 답을 내겠다 싶으면 바로 omr에 체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60회 1차시험 민법은 정말 너무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다푸는데 55분이 걸려 2번 푸는건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판단되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서 omr로 옮기지 않은 것만 다시 풀었습니다.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문제가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9) 결론

민법은 기본서 무한회독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출지문이 많이 출제되는 해에는 객관식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지문의 정오를 이미 알고 있기에 잘 볼 수 있으나, 빈출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지 않은 해에는 조금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0회 1차에서 빨리 풀 수 없었던 이유도 어색한 지문들이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땐 결국 민법에 대한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 잘 풀 수 있고 그러려면 기본서 회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험결과도 97.5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59회 때는 서술할 것이 없어서 60회만 씁니다. 59회는 기본강의만 듣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 산재법 커리큘럼 - 95점(특 - 18, 상 - 10, 디 - 10)

기본강의 - 시험(특상디 공통)

☑ 기본강의 수강 기간

(1) 특허법

중간고사 직후부터 듣기 시작하여 기말고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산재법은 조문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문을 인쇄하여 따로 보면서 익숙해지려고 하였습니다.

(2) 상표법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기본강의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표법도 마찬가지로 조문을 인쇄하여 꾸준히 보았습니다. 방학기간이 되었으므로 기본강의 진도를 민법과 특허법과는 달리 빠르게 뺄 수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까지 진도에 맞게 복습하고 조문에 익숙해지려고 하였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기본강의가 끝난 이후에 바로 수강하였습니다. 특허나 상표에 비하여 할 만한 과목이고 강의 수도 훨씬 적기 때문에 금방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 기본서 회독

기본서 회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 회독을 해야 기본기를 쌓을 수가 있고 결국 2차에서도 산재법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민법처럼 11회독까지는 못하였으나, 특허법은 6회독, 상표법도 6회독

하였습니다. 특상은 기본서가 조금 두꺼운 면이 있긴 하여 회독 수가 그리 많진 않았습니니다. 다만 목차부터 읽어서 기본서의 내용을 머릿속에 구조화하고 읽는 방식으로 회독 하여 내용의 주소설정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기본서가 좀 얇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크게 많지 않은데다가 특허법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기본서 12회독 할 수 있었습니다.

❑ 객관식 문제 풀이

기본서 약 3회독 한 시점에서 문제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산재법 문제풀이는 지문이 내가 익숙하냐 아니냐가 정오의 기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문이나 판례의 문구가 지문으로 등장하는데, 틀린 지문이라면 어딘가가 바뀌어 있고 틀린지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산재법은 기본서도 여러 번 회독하려 하였지만 결국 객관식 문제풀이에 익숙해지려고 하였습니다. 2차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서의 내용을 잘 알면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1차시험에서의 산재법은 이해를 다 하고 있어도 지문에서 함정에 빠지면 틀리게 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기본서를 아예 안보는 건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특허와 상표는 객관식문제집을 사서 풀었고, 디자인보호법은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 조문 공부

특상디 모두 조문이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조문을 법제처에서 인쇄하여 꾸준히 보았다. 주체(심판관합의체 등),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등등 장난을 쳐둡니다. 따라서 법조문을 기본서 만큼이나 많이 봤습니다. 이를 엄청 많이 보다 보면 조문에 장난쳐두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를 틀린 지문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특상디가 조문이 서로 비슷한 면이 있으나,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살짝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 각 조문집마다 예를 들어 특허에는 '상표와 디자인과는 다름'이라고 적어두고 상표와 디자인과 다름을 계속 인지하면서 조문을 읽었습니다.

조문을 많이 봤지만 토씨 하나 안틀리고 외울 정도로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외우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있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장난질을 하는지 감이 왔었습니다. 그런 포인트 위주로 조문을 숙지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는 형광표시를 해두었습니다.

❑ 시험전략

정직하게 특상디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민법처럼 빠르게 풀다가는 함정에 걸리고 다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문을 최대한 정독해서 함정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여 최대한 한 문제 풀 때 신중하게 풀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7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65분안에 다 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5지선다 문제이므로, 어느 한 지문이 조문이나 판례 장난 쳐둔 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지문은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부족의 압박을 느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검토할 때(시간이 된다면) 다른 지문을 가볍게 확인해보긴 하였습니다.

【자연과학개론】

❑ 과목별 맞은 개수(82.5점)

물리 - 8/10, 화학 - 6/10, 생물 - 10/10, 지학 - 9/10

❑ 커리큘럼

기본강의 - 시험

기본강의에서도 문제풀이법도 같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 베이스

고등학생 때 물리1, 화학2, 생물2, 지구과학1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일반물리,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유기화학, 생화학, 반응공학을 하여 자연과학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물리, 화학

(1) 기본강의 수강 기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물리나 화학은 공식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들으며 공식을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2) 문제 풀이

물리나 화학은 문제 풀이가 생물 지학에 비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는 문제를 범위를 가리지 않고 많이 풀었습니다. 다만 화학은 문제가 너무 괴랄하여 일부 포기한 부분이 존재하긴 합니다. 문제집은 강사 문제집만 한권 정하고 풀었습니다. 문제집은 백지로 두고 아이패드য়ে다가 풀었습니다.

☑ 생물, 지학

(1) 기본강의 수강 기간

화학을 문제풀이에 들어갈 때 생물, 지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두 과목은 암기과목이므로 제일 늦게 시작하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물의 경우에는 강의를 듣고 단원별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두었다. 지학은 박준희 필기노트만 보았습니다.

(2) 문제 풀이

생물은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이 주로 나와서 엄청 많이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문제집 한권 정도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지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시험 전략

생지물화 순으로 풀었습니다. 자연과학은 60분안에 40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타임 어택입니다. 그리고 생지는 알면 맞고 모르면 찍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빨리 풀고 넘어가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물화는 개념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계산문제가 많이 나와서 생지에서 아낀 시간을 쏟게 됩니다. 물리와 화학에서 개념 문제등을 먼저 풀고, 계산문제를 풀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문제는 물리가 더 쉽다고 생각해서 물리를 먼저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산문제도 안 풀린다 싶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최대한 풀리는 문제들만 풀고 나머지는 찍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리 먼저 시도해보고 화학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화학은 진짜 풀라고 낸 문제가 맞나 싶을 정도의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응공학 문제는 학교에서 A가 나온 과목임에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풀리는 문제가 없다면 이제 잘 찍어서.... 운을 한번 믿어봐야합니다...

☑ 결론

최대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확실히 맞게끔 해야합니다. 풀 수 있더라도 20분이 걸려서 풀면 그건 틀린 거나 다름없는 결과를 불러오니 오래 걸린다 싶으면 넘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같은 배점인 2.5점임을 염두하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 시간관리

출제되는 문제 수,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해 공부 비율을 조절하였습니다.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3개로 나누었습니다.

큰 틀은 주6일 공부하고, 민법을 공부하는 날의 산재법 공부는 특상디를 돌아가면서 공부하고, 민법을 안하는 하루에는 특허와 상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법을 제일 공부많이 하면서도 특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좀 덜 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표를 조금 많이 한 감이 있지만 2차도 고려하면 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와 화학을 같이 공부하는 건 좀 별로인거 같아서 물생 화지로 나누었습니다. 아래처럼 루틴을 짰습니다.

월 : 민 - 특 - 자(물생)

화 : 민 - 상 - 자(화지)

수 : 특 - 상 - 자(물생)

목 : 민 - 디 - 자(화지)

금 : 민 - 특 - 자(물생)

토 : 특 - 상 - 자(화지)

일 : 휴식

월 : 민 - 상 - 자(물생)

화 : 민 - 디 - 자(화지)

수 : 특 - 상 - 자(물생).....

☑ 체력관리

주5일 헬스장 1시간씩 다녔습니다. 시험보는 2월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생각보다 1차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 좀 과투자 한거 아닌가 싶고 2차공부에 시간을 좀 투자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 합니다. 하지만 2차공부를 1차시험 준비기간에 하다가 1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들어서 1차에 올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부 - 동차 기간

【민사소송법】

☑ 점수

57.33점

☑ 커리큘럼

기본강의 - 사례강의 - 기초gs - 실전gs a,b형 - 시험

☑ 시기별

(1) 기본강의(2월말~ 3월)

이창한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선배한테 암기파일 받은 거가 있었지만 전혀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암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 듣고 복습하는 수준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2) 사례강의(4월)

사례강의를 들으면서 암기노트(기본서) 회독을 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념 설명도 기본 강의처럼 많이 해주시는데 기본강의 때 뭘 들은 건지 새로운 내용 같아 보이는 것도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듣고 나니 민소에 대한 감이 미약하게나마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암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암기노트에도 암기파일의 두문자 등을 다 표시를 해두고 서로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3) 기초gs(5월)

처음으로 답안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암기한 걸 열심히 갖다가 쓰는 것에 불과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정도라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암기노트 회독을 꾸준히 하였고 답안지를 어떻게든 쓰려면 암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암기를 매우 열심히 하였습니다.

(4) 실전gs a,b형(6월)

5월이랑 크게 달라진 공부방법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답안지 작성도 gs와서 쓴게 전부입니다. b형은 현장강의를 들었고, a형은 월화 아침에 학원에 쓰러 왔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암기노트를 열심히 봤던 것이 암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해와 암기가 이 때 비로소 유기적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5) 7월

암기노트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종합모의고사 민사소송법 2번 풀러와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초gs하나와 실전gs 2개를 한 번씩 목차잡는 방식으로 복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을만한 것은 gs답안지를 외웠습니다.

☑ 방식

(1) 암기노트 회독

통합으로 회독을 하려 했으나, 너무 두껍다고 생각해서 암기노트를 회독했습니다. 6회독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차 준위별로 하이라이트 색을 바꿔 쳐놓고 책을 구조화하여 읽었습니다.

(2) 암기

선배가 준 암기파일을 flash앱에 넣고 자투리시간 등등을 활용하여 틈틈이 암기하였습니다. 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회독할 때 좀 중요해 보이는 것은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3) 문제풀이

전적으로 gs문제만 풀었습니다. 사례집은 사례강의 기간에만 잠깐 보는데 그쳤으며 핸드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도 이걸 느껴서 다른 동차와는 달리 AB형을 둘다 수강했었습니다. 당시엔 이게 최선이었던 거 같습니다.

❑ 아쉬웠던 점과 느낀 점

사례집을 좀 더 봐야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60회 민사소송법 시험은 gs에서 출제됐었던 논점들이 많이 나와서 운이 좋게도 동차임을 감안하면 나쁘진 않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례집도 열심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은 변하지 않았고 기득 때는 사례집도 좀 열심히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지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답안지를 써야하여 암기를 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 땀 내용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내용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암기하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암기한 부분에서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른다는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내용 이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먼저 된 상태에서 외워야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금만 요약서술을 해도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빠지거나 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암기자료가 아니라서 받아들이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득을 시작할 때는 암기자료를 제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풀이 양도 부족했습니다. 내용 이해를 아무리 잘해도 사례적응력이 떨어지면 답안지를 잘 쓸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기득 땀 문제를 읽으면 될 주논점으로 하여 묻고 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을 수 있게 문제도 많이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허법】

❑ 점수

53.33점

❑ 커리큘럼

기초gs+ - 실전gs - 특강 콜라보 gs - 시험

❑ 시기별

(1) 기초 gs + 기간(3,4월)

준특허 회독과 강의 복습을 하였고, 암기자료(총알)을 나눠주셔서 이걸 외우고 암기 흔적을 남기는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현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실전gs(5월)

준특허 회독 하였고, 암기도 꾸준히 하였으며, 기초gs+ 문제들을 다시 한번 목차 잡는 방식으로 복습하였습니다. 실전gs는 생각외로 쓸만 하였지만 gs성적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실전gs때부터는 책을 안보고 답안지를 썼습니다. 3,4월에 총알 암기를 열심히 해둔 덕에 답안지 작성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3) 콜라보gs(6월)

실전gs를 이때 복습하였고, 준특허 회독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암기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 gs문제들을 조금 분류하여 7월에 임박했을 때 한 번씩 더 볼 문제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최판문제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한 문제였습니다.

(4) 7월

막판 암기스퍼트를 올렸고 준특허 회독도 2회독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별해둔 gs문제들을 풀었습니다.

☑ 방식

(1) 기본서 회독

기초gs+가 끝나고 기본서 회독을 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강의 진도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회독을 하였기에 회독을 많이 하진 못하였습니다. 일단 준특허의 각주는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 내용만 보기에다 벅찼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고 한 각주 몇 개만 보았습니다.

(2) 암기

총알 나눠주신 것을 암기했습니다. 전술했듯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암기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문제풀이

gs문제만 풀었습니다. 기출문제 목차잡기 등의 방식을 조언받았으나, 생각만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gs문제만 봐도 너무 많았습니다.

☑ 느낀점

동차 기간 동안 특허법 공부는 학원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가는 데에 주력했었습니다. 강의 복습하고 외우라는 것을 외우며 주도적인 공부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동차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 시험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내용이해를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암기는 열심히 하여 답안지를 쓸 수는 있었지만 이해가 좀 덜 된 상태에서는 답안지의 퀄리티가 높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차 수준에서는 같은 내용에 대해 조금만 다른 각도로 물어봐도 다른 내용을 묻는걸로 착각을 한다거나,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닌 외운 답안지를 그대로 쓰는 형식을 많이 써서 퀄리티가 더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한계가 있기에 일단 외울 수밖에 없었긴 합니다.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도전하기에는 제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기출문제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상표법】**☑ 점수**

48.33점

☑ 커리큘럼

기초gs+ - 실전gs - 특상 콜라보 gs - 시험

☑ 시기별

특허랑 상표를 거의 비슷하게 공부하였습니다. 보는 자료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특허랑 거의 똑같이 공부하였습니다.

☑ 방식**(1) 기본서**

데생 봤습니다. 기본서 자체가 얇아서 좋긴합니다. 근데 이 때 보던 버전에서는 [라벨]이 좀 흐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읽을 때 눈에 힘이 좀 들어가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험 끝나고 이거에 대해 피드백 했더니 다음 버전 부터는 라벨이 엄청 진해졌습니다.

(2) 판례

상표는 판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판례집을 사서 볼 시간은 없다고 생각해서, 기초gs+ 때 나눠줬던 판례들 중에 최근판례나 좀 중요한 판례만 체크해두고 봤습니다.

(3) 암기, 문제풀이

특허랑 거의 똑같이 암기하고 gs만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는 보지 않았습니다.

☑ 느낀점

상표는 진짜 너무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유사판단이나 인지도 판단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판례도 딱봐도 비 유사한 상표를 유사하다고 하질 않나, 유사해보이는데 비유사하다는 판례가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일부 판례는 억지를 부리는 판례가 있다고도 느껴졌습니다. 글리아타민 판례에서 비유사하다고 한 것도 동의할 수 없었고, 데이터팩토리도 비유사하다고 생각했으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같은 판례도 다수의견에 전혀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60회 데이터팩토리 판례결론을 몰랐다면 두 표장이 비유사하다고 답안지를 썼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차기간에는 받아들이는 것에 적응을 잘 하지는 못하여 단순히 결론을 암기하는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는 기득 되니 조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회 시험 때 데이터팩토리는 결론에 동의하기 힘들었고 59회 때 이미 출제된 바 있다고 들어서 과감하게 버렸는데 1번부터 출제가 되어 대차게 망해버렸습니다. 남들 다 외워 적은 판례도 창작해서 적었습니다. 완전 망했다고 느꼈고 진짜 결과도 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런 너무 중요한 판례들은 야수의 심장으로 버리면 안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득 때는 중요판례들은 모두 챙겨갔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점수**

56점

☑ 커리큘럼

기초gs - 실전gs - 시험

☑ 시기별**(1) 4월**

3월에는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정다운 기초gs를 수강하였습니다. 양이 많지 않고 1차 때 워낙 디자인보호법 기본서를 많이 봐두었기에 다시 복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암기도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2) 5월

실전gs 수강하며 답안지를 썼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유사판단과, 창작비용이성 정도를 외워두면 꽤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침해부분의 판례들은 특허법에서의 판례를 디자인변전으로 바꿔서 기술하면 되서 큰 어려움이 있진 않았습니다.

(3) 6월,7월

gs복습, 기본서 회독, 암기 정도를 매일 소량의 시간만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들쭉날 점심시간에 기본서 1시간정도를 볼 수 있기에 이 시간에 좀 암기가 덜 된 것 위주로 체크를 해두고 빠르게 눈에 익혀 단기기억을 들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 방식

매일 기본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봤습니다. 암기는 점심 먹으면서 하였습니다. Gs 복습은 기본서 볼 시간을 좀 할애하여 복습했습니다.

☑ 느낀점

디자인은 내용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암기할 것도 적으며, 특허에서 쓰던 답안지 형식을 조금 차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공부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학과목과 달리 법과목이므로 답이 틀렸다고 0점이 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학반응공학에 매우 자신 있었지만 그런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1차에서도 공부하는 과목이기에 새로운 내용을 배울게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스했으므로 잘한 결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차 공부 - 기득 기간

기득 때는 평일에 답안작성 스터디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gs모범답안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이 때 처음하였습니다. 다른 사람 답안지를 보며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답안지를 쓰니 부족해보이고 이렇게 답안지를 쓰니 깔끔해 보이는지를 스터디원의 답안지를 통해 일정부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gs에서만 답안지를 쓰는 것은 풀답안 작성 연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평일에도 답안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이 내 답안지를 보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 정말 새겨들었습니다. 아직도 혜운 누나가 한 이중 부정은 위험할 수 있다고 2번이나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여러 코멘트들을 기본서 앞페이지에 붙여놓고 주의하려고 하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스터디를 해주신 홍혜운님, 박인수님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법】

☑ 점수

63.33점

☑ 커리큘럼

심화강의 - 기출문제해ند북강의 - 이창한 실전A - 곽준형 실전B - 이창한 실전B - 시험

☑ 시기별

(1) 합격자발표 전까지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통합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합을 정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합격자 발표날이 다가오니 집중이 잘 되지 않아 통합에서 암기대상을 다시 선별하고 암기파일을 나에게 맞게 통일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2) 심화강의, 기출문제강의, 1월

11월에는 심화강의를 들으며 강의 진도에 맞게 복습을 하였습니다. 통합을 천천히 회독하여도 스스로 깨칠 수 없었던 잘 모르는 부분을 심화강의를 통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심화강의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통합을 회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새 통합을 사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암기노트에서의 필기와 두문자와 같은 것들을 새 통합에 옮겨 넣으며 회독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동차기간에 보던 기초gs문제와 실전gs A,B형 풀답안 작성을 하였습니다. 암기파일을 이미 만든 상태였기 때문에 암기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집도 새로 나와서 풀고, 핸드북도 풀었습니다. 이 기간에 작년gs문제들과 사례집, 핸드북을 풀며 동차 때는 쉽게 가질 수 없는 사례 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 2월

2월초까지 통합의 회독 주기가 끝난 직후부터 암기만을 위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암기에 매진했습니다. 이때에는 통합도 보지 않았고 오로지 암기만 하였습니다. 동차 때보다는 다른 암기의 정밀도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하루종일 암기만 하는 것은 매우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풀이를 병행한다던지, 통합을 회독하면서 암기를 한다던지 하는 공부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4) gs기간(3~6월)

주말에는 항상gs를 쓰러 갔고, 평일에는 스터디를 구해 모여서 답안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일주일에 4번은 민소 답안작성을 하였습니다. 평일에 쓰던 것은 작년 gs문제와 기출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미 12~1월에 한번 작성했던 문제를 쓰는 것이기도 해서 좀 쉽게 답안을 작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에 쓸 때 스터디원들께 거울에 썼던 것이라고 언급을 해야 했는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스터디원 누나가 민소 답안지를 너무 잘 쓴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미 강사답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게되어 여기서 출제된 파트는 자신있게 쓸 수 있게 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통합 회독도 하였고, 핸드북을 추가로 하루에 9문제씩 목차정도만 잡아가며 풀었습니다. 2월에 암기 스퍼트를 하였다고 이 기간에 암기를 관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gs에 나오는 최신판례나 최신판례가 아니더라도 외울만한 것들을 새로 업데이트하여 그때 그때 암기하였습니다.

(5) 7월

답안작성은 7월에 총 3주가 있어서 3차례 하였습니다. 종합모의고사1회를 포함합니다. 나머지 2차례는 작년종합모의고사 1,2회를 절반씩 섞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빠르게 회독하였습니다. 7월에 총 3번 회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번의 회독은 10일정도의 주기를 잡았고, 나머지 1회독은 2일에 걸쳐서 회독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첫1일은 시험 2일 전에 450p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p를 특상 시험보고 와서 회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350p회독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기관력까지 보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야속하게도 바로 다음 파트인 객관적병합에서 제일 앞에 있는 대상청구가 나와 아쉬웠습니다.

시험보기 직전에는 암기가 덜 된 판례들을 한 번씩 눈에 익혀놓고 들어갔습니다.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 방식

(1) 통합 회독

회독 수는 정확히 세지 않았으나 8회독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회독하는 방법은 암기노트와 마찬가지로 목차에 준위에 맞게 하이라이트를 쳐두고 구조화하면서 읽었습니다. 기독 생활 초반에 정독을 할 때는 좀 천천히 정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화강의 이후에는 조금은 속도를 올려 주기를 훨씬 줄였으며, 7월이 되서 주기를 10일에 한번꼴로 볼 수 있게끔 줄였다. 시험 직전 2일에 1회독은 실패하였습니다.

(2) 암기

작년과 달리 내가 만든 암기파일을 썼고, 2월에 암기 스퍼트를 엄청 올렸으며 gs기간에도 틈틈히 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방식은 동차랑 동일하게 앱을 사용하였습니다.

(3) 문제풀이

작년의 아쉬움을 풀었다. 사례집, 핸드북, 작년 gs AB, 올해 gs AB, 그리고 객준형 강사님 gs B형도 풀었습니다. 동차와는 다른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이정도 풀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 느낀점, 아쉬운점

마지막 회독을 끝까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확실히 특상을 이미 시험을 보고 나니 회독하면서 특상 시험문제와 답안지가 아른거리는게 문제였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 아쉬움을 잘 못떨치는 성격임을 잘 알면서도 시험 본 첫날에 민소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잘못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7월에 들어서 좀 중요도가 덜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으로 예를 들어 가집행, 증인, J단원의 처분권주의 전 부분 등을 버렸습니다. 추가로 이 때 개인적으로 어느 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서 관할파트도 싹 버렸습니다. 그런데 관할 마침 출제되어 간담이 서늘해진 기억이 있습니다. 6월까지 열심히 암기해둔 것이 완전히 휘발되거나 하진 않아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었으나, 문항별 점수를 보면 관할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긴급적이면 다 챙기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문제풀이 방식

민소는 문제를 읽고 빠르게 주논점을 캐치를 하고 목차는 최대한 간단하게만 잡아두고 답안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주논점을 캐치를 하지 못하였다면 답안작성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안 쓰기 바로 직전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썼습니다. 답안작성을 가급적 빨리 들어가야 하는 이유로는 민소는 양이 어느정도는 득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나 상표에 비해 써야할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풀답안 작성할 때 항상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 중요하다고 하여 문제간의 시간배분을 어기고 답안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에는 논점이 뿔히는 부분에 별표시를 해두어 문제가 길어도 문제를 읽다가 논점을 중간에 까먹어버리는 일이 최대한 없게끔 하였습니다.

목차를 간단하게 잡기 때문에 여분의 종이는 사용하지 않고 종이에다가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변론 주의면 '변', 기판력이면 '기' 등의 축약어를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판검은 ㅎ 표 ㄱ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목차를 잡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다면 목차를 잡지 않았습니다.

【특허법】

☑ 점수

59.33점

☑ 커리큘럼

기본-판례-사례-실전gs A, B - 시험

☑ 시기별

(1) 합격자발표 전까지

준특허 작년판 회독을 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준특허 각주도 같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 전까지 민소와 마찬가지로 암기자료를 선별하고 내방식의 암기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동차 때는 총알 파일을 직접보고 암기하였으나, 이번엔 앱을

사용하여 암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특상을 하나의 암기방식으로 통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 강의 수강 기간(11월~1월)

기본강의 기간에는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며 기존 준특허의 필기 등을 옮겨 적었습니다.

판례강의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례강의 보충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판례를 잘 요약해두셔서 이걸 보고 판례집을 보면 좀 더 잘 읽힙니다. 판례강의가 끝난 이후로는 7월까지 꾸준히 매일 3년 이내 선고 판례와 별3개 이상 판례들을 체크를 해두고 6개씩 읽었습니다. 3년 이내 선고 판례는 37개 정도여서 6일이면 한 번씩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별3개 이상 판례들은 70개여서 12일 정도에 걸쳐서 한 번씩 볼 수 있었습니다.

사례강의는 문제를 먼저 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례강의의 가장 큰 의의는 문제를 스스로 푼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들을 접하며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해보는 시행착오들이 실력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설 강의에서 '~을 했어야 했다'를 주의깊게 들었고 도움이 될만한 조언들을 기본서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판례강의를 들을 시점에서부터 준특허 회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양을 줄일 시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각주도 열심히 보았습니다.

(3) 2월

열심히 암기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4) gs기간(3~6월)

주말에는 gs를 썼고 복습은 주말에 바로 하였습니다. 평일에는 스터디원들과 하루 풀답안 작성을 하고 돌려보고 코멘트를 달아주었습니다. 평일에 쓴 것은 작년 실전gs문제였습니다. 기본서 회독을 이때부터는 속도감 있게 패스할 각주들을 하나둘씩 지워가며 읽었습니다. 전술했듯 판례들도 보았고, 사례 상(기출문제집)도 여러 번 풀었습니다. 사례 하를 풀려고 계획은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gs에 출제되는 최신판례들이 생기는데 이를 암기파일에 추가하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5) 7월

기본서를 3회독하였습니다. 시험 전날에 1회독을 하였습니다. gs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흔들렸던 문제들을 미리 표시해 두었는데 그것들 위주로만 풀었습니다.

☑ 방식

(1) 기본서 회독

8회독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민소보다 투자하는 시간 자체가 더 적어서 회독수는 비슷한거 같습니다. 준특허가 목차에 굳이 하이라이트를 치지 않아도 가독성이 좋다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편집을 하진 않았습니다.

(2) 암기

총알을 암기파일에 그대로 옮기고 총알에 없는데 암기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을 추가하여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최판도 추가 해야했습니다.

(3) 문제풀이

gs문제와 사례 상(기출)을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동차 때보다 풀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 기출문제들에 동차 때보다 더 적응을 잘 해 두었습니다.

(4) 포스트잇 활용

기본서 앞페이지 자주하는 실수, 문제풀 때 주의해야할 키워드, 마인드 등을 기본서 맨 앞페이지에 붙여두고 이를 수시로 보기도 하였고, 풀답안 쓰기 직전이라 실제 시험 직전에도 보았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를 훑고 풀답안을 쓰면 자주했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안에는 포스트잇으로 어떻게 사안포섭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둔 것을 적어두었습니다. 모인출원, 진보성, 균 등론, 간접침해, 권범심 정도를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신판례가 있으면 그 최판의 흐름을 요약해서 해당파트에 붙여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사안포섭을 실제 시험에서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61회 특허법 시험

특허법이 정말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파본확인을 하면서 페이지 수가 9페이지 인 점, 문제4번의 가독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표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1100명중에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틀릴 수도 있을 것이고, 부수적인 논점은 누락 많이 하겠다고 생각하며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시험에서 어렵게 한 요인은 이렇게 기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 문제가 너무 길어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야해서 문제풀 시간이 부족한 점, 약간은 지엽적인 문제도 출제된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멘탈이 무너졌어도 최대한 안무너지게 다같이 망하겠구나 생각한 것과, 아무리 문제가 길어도 시간배분을 꼭 지켜서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한 점, 그 와중에 누구나 만만하게 볼만한 진보성과 같은 문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작성한 점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느낀점

특허는 언제 어떻게 기출될지 알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형, 조치형 문제는 당연히 대비를 해두어야 하고, 최판도 잘 숙지를 해야하고, 지엽적인 법조문 찾기도 종종 연습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출을 보면 물어보는 방식도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물어보는 거에 맞게 대답해주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 문제풀이 방식

맨 마지막에 뭘 묻는지부터 설문을 다 읽고 맨 위로 와서 사례를 읽었습니다. 주체를 표시했으며 소송이나 심판을 걸면 옆에 갑 -> 을 이렇게 표시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갑이 특허권자라면 무엇을 특허 받았는지 A+B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R과 동그라미 기호 그려넣었습니다. 그리고 을이 실시자라면 무엇을 실시하는지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4개 이상 나오면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이는 본인이 제일 편한 방식을 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하며 주논점을 잡고 나면 목차를 잡았습니다. 배점이 너무 작으면 목차를 굳이 잡지 않았고, 배점이 적당하면 목차를 간단히만 잡았고, 배점이 10점 이상으로 크다면 목차를 좀 열심히 잡고 답안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파악하며 아 뭘 묻는구나(주논점)를 파악했더라도 이게 정말 물어보는게 전부일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원가 숨겨져 있는 것이 없을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확인하려해도 안보이는 건 결국 안보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숨겨둔 논점들을 최대한 발견해내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그런 시행착오의 경험들을 잘 정리해둬서 시험직전에 훑고 들어가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고민하고 답안지를 썼지만 12분 이상 고민하면 좀 위험한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법은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푼티를 내기 위해 특허요건에 관한 문제에서는 1. 특허발명, 2. 공지기술, 3. 대비 이런 목차나, 침해문제에서는 1. 특허발명 확정, 2. 실시제품, 3. 대비 와 같은 목차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안포섭도 최대한 판례의 흐름에 맞게 사안포섭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려면 판례의 표현들을 최대한 이용하면 좋다고 생각하여 판례를 한 번 더 작성한 것과 같은 느낌으로 사안포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차 때와는 조금 다른 점으로 단순히 암기한 것을 갖다가 바르는 방식을 지양했습니다. 물음에 동문서답을 하지 않게 하였고, 배점과 들어가야할 논점들을 고려하여 강약을 조절하였습니다. 준비해둔 목차가 있더라도 그대로 쓰진 않았던 거 같습니다.

【상표법】

☑ 점수

57.66점

☑ 커리큘럼

기본강의 - 판례강의 - 답안작성입문 - 실전gs A - 최지환 실전gs - 실전gs B - 시험

☑ 시기별

(1) 강의 수강 기간

민특과 달리 상표법은 개정법이 있었던 관계로 기본강의가 개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본서를 바꿨기에 새 책에 적응하여야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회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기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상표가 확실히 암기할 양은 제일 적었습니다.

판례강의는 이 판례에서 뭐가 논점이 됐는지, 사실관계의 대략적인 흐름, 판례가 사안포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기본서 해당 판례 옆에 써놓고 답안작성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려져서 사안포섭할 때 쓰게끔 했습니다.

답안작성입문강의를 들은 이유는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사례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연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뭐를 트리거로 할지 이런 것을 파악했습니다. 문제풀이 스킬도 좀 터득하였습니다.

(2) 2월

민특과 마찬가지로 암기스퍼트를 올렸습니다.

(3) gs기간(3~6월)

답안지 목차 스타일이 한경훈변리사님 목차대로 쓰게 편해서 gs는 한경훈 변리사님 것을 들었습니다. 평일에도 주1회 풀답안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서도 이 기간에 꾸준히 회독하였고, 암기도 틈틈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존동의 문제와 아주 중요한 최판이라고 여겼던 레고캠파마나 양탕국, 번피트니스와 같은 판례 문제들을 열심히 준비해두었습니다. 레고캠파마 때문에 희석화 단문도 준비했었습니다.

(4) 7월

기본서 회독하고 등등은 민특과 대동소이합니다. 최신판례 강의가 무료로 열려서 이를 수강했다. 효율적으로 최판을 다시한번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이 어떻게 출제될지 다각적으로 알려주셔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점심시간에 최신판례를 보고 시험을 치렀는데 운이 좋게도 최판이 많이 나와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방식

(1) 기본서

상표는 기본서의 내용을 회독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붙여놓은 사안포섭 문구나 트리거들을 읽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본서에 열심히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가필을 했습니다.

(2) 판례집

판례의 결론을 최대한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유사판단 등) 판례집을 보며 결과를 최대한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 뭐가 논점이 됐는지 확인하고 사안포섭 문구들도 익혔습니다.

(3) 문제풀이

사례집에 있는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보았고, gs도 이정도면 많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 느낀점

판례의 결론들을 최대한 숙지를 해두니 동차 때의 불만은 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논점을 빠짐없이 쓰는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주논점이 적은 문제는 괜찮았지만, 다논점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트리거를 보면 일단 해당하는 조문들을 적어두고 목차를 짜면서 논점이 아닌 것들을 지워나가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결국 민특에 더 자신감을 가졌고 상표는 내용과 양에 비해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여 살짝 방어과목으로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 문제풀이방법

(1) 설문 읽기

특허와 마찬가지로 설문을 읽습니다.

(2) 표기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주체, 상표, 상품, 등에 표기합니다.

(3) 트리거

볼 때마다 해당하는 논점들을 시험지 좌우에 적어둡니다.

(4) 논점 선별

물어보는 것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뭐가 논점인지 파악하고 논점 아닌 것은 지워나갑니다. 그리고 주논점이라서 강하게 써야 하는 것도 표시하여 강약 조절을 했습니다.

(5) 목차

배점이 크다면 목차를 짜고 배점이 작으면 목차를 짜지 않았습니다.

(6) 검토 후 답안 작성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락한 것이 있는지 답안결론을 제대로 내렸는지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점수

67.66점

☑ 커리큘럼

기본강의 - 실전gs - 시험

☑ 시기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은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해 조금 늦게 시작했으며 관련디자인 개정이 있어서 심사기준을 기다린 것도 있었습니다. 기본강의를 듣고 무한 회독 하였습니다. 암기할 것은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4월까지 매일 약 30분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5월에 실전gs를 풀었습니다. 이 때 답안지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간만에 디자인 답안을 작성하여 어색하기도 했으나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7월에 종합모의고사로 한 번 더 답안을 작성해보고 민소를 보고 난 후 점심 때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찾아 눈에 익혔습니다.

☑ 느낀점

동차 때 공부한 방식이 틀리진 않았던거 같습니다. 다만 60회에 비해 61회는 문제의 난이도는 좀 어려웠습니다. 특허법 문제를 풀던 것처럼 풀었습니다. 유사디자인 같은건 몰라서 소설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공부를 하면 선택과목은 패스를 시켜주는 느낌입니다.